

랭전종식후 적극 추진되는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일체화에 대한 연구

부교수 홍영철

1. 서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와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대륙별, 지역별협조를 강화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전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자주와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대륙별, 지역별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세계자주화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대륙별, 지역별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분쇄하고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기때문이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은 사회경제발전의 미숙성, 처지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서로 단결하고 협조할 때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

이로부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지역의 일체화를 지향하는데로 나갔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라틴아메리카의 전대특적인 범위에서 적극화되였다.

이 논문에서는 랭전종식후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세계가 다극화의 길로 나아가는것이 현시대의 흐름으로 되고있으며 인류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야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하려고 한다.

2. 본론

2. 1. 아메리카《일체화》의 략탈적성격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일체화의 본질

랭전종식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아메리카《일체화》를 배격하고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일체화를 적극 지향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정책은 랭전종식후 세계의 《일체화》흐름이라는 강도적궤변밑에 새로운 형태를 띠고 실시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이 지역 나라들을 저들에게 예속, 동화시키려는 목적밑에 아메리카《일체화》전략을 들고 나왔다.

아메리카《일체화》전략은 내용상 두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다. 아메리카《일체화》전략에서 주요한 내용의 하나는 경제분야에서의 《일체화》실현을 위한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를

조작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분야에서의 《일체화》실현을 위한 아메리카《민주공동체》를 조작하는것이다.

아메리카《일체화》전략은 그 성격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아메리카의 전지역을 부르조아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 부르조아사상문화와 생활양식만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만들며 이 지역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자는데 목적을 둔 침략적이며 랍탈적인 정책이다.

발전된 자본주의국가들과 발전도상에 있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망라하는 제국주의적지역경제통합인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를 놓고보아도 그것이 침략적, 랍탈적성격을 띠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원래 제국주의지역경제통합은 지역내 나라들의 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한 제국주의국가의 시장지배수단의 하나이다. 때문에 제국주의지역경제통합은 참가국들사이의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더우기 지역경제참가국들사이의 경제력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지배와 예속관계는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 제2차 세계대전후 출현한 지역경제통합들이 대체로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들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일방에 의한 타방의 경제적지배를 견제하는것을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것은 이와 관련되어있었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후 수많은 지역경제통합들이 출현하였지만 발전된 나라와 발전도상나라가 다같이 참가한 지역경제통합은 없었다.

《지역공동의 변영》이라는 간판밑에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조작을 위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아메리카《일체화》전략이라는것은 랑전종식후 이 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손쉽게 실현하기 위한 책동을 미화분식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랑전종식후 제국주의자들이 제창하는 아메리카《일체화》전략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가치관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기 위한 침략적이며 랍탈적인 정책, 지배주의적정책의 산물이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날이 갈수록 아메리카《일체화》전략을 반대배격하는 기운이 고조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일체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일체화는 본질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반대배격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와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지역적통합을 실현하는것을 말한다.

라틴아메리카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왔으며 그것으로 하여 나라의 자주적발전이 심히 억제당하였다. 결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웅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고 경제발전에서도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다.

이로부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지역의 일체화가 나라들사이의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여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배격하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로 된다는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가 다극화의 길로 나아가는것이 현시기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이 지역 인민들은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일체화를 실현하려는 지향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1993년 11월 유럽공동체가 유럽동맹으로 개칭된 후 유럽의 일체화를 다 그쳐나가고있다. 이밖에도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상해협조기구, 2000년에 출현하여 5개 나라(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로 확대된 브릭스 등이 발족하여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망라하여 전 지역적인 협조기구로 확대되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2002년 7월에 50여개의 성원국을 가진 아프리카통일기구가 아프리카동맹으로 발전하여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지역적협조와 단결을 강화해나가고있다.

세계가 다극화의 길로 나가는것이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는 이러한 현실은 지역의 일체화를 실현하는것이 제국주의의 온갖 지배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옳은 길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2. 2. 경제분야에서 지역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투쟁

경제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의 내란과 국경분쟁, 경제적침체와 같은 이러저러한 원인들로 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지역적경제통합기구들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여러 형태의 협조형식으로 지역의 경제적일체화를 추진시키며 집체적힘으로 내부시장을 탐구하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특히 1990년 5월에 진행된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지역의 경제적일체화를 강화해야 하며 집단적자력갱생에 의거하여 각국이 모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랭전종식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역의 경제적일체화과정을 적극 추진시켜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우선 랭전종식후 지역의 경제적일체화를 위한 투쟁은 중앙아메리카나라들에서 적극 추진되었다.

이 지역 나라들은 정치적 및 경제적발전수준, 민족문화와 풍습, 진보적력량의 준비정도와 조직력에서 일련의 차이가 있었으나 력사적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부터 외세의 경제적압력과 간섭, 략탈책동을 짓부시고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협조를 강화해나갔다.

중앙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과 까리브공동체였다. 특히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성원국들사이의 경제적협조가 랭전종식후 다시 활기를 띠었다.

1990년 6월 과테말라의 안띠구아시에서 진행된 제8차 중앙아메리카주수뇌자회의에서는 집체적으로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고 《중앙아메리카주를 위한 경제행동계획》(《안띠구아성명》)을 채택하였다. 수뇌자들은 이 성명에서 일치하게 지난 수십년동안 중앙아메리카지역이 내란과 내부충돌로 하여 경제가 마비상태에 빠졌으며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운영과 관련한 협조가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니까라과에서 내란이 종식되고 쌀바도르에서 평화적조정노력이 진전을 보이는 상태에서 지역통합을 실현하여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데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아메리카주의 경제가 세계시장에 진출할수 있게 하는 기구를 창설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대외채무해결에서 중앙아메리카주나라들에 협조를 줄것을 세계공동체에 호소하였다.

1991년 7월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성원국들은 제10차 수뇌자회의를 열고 1992년말에

공동시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2년 12월 파나마에서 진행된 중앙아메리카주수뇌자회담에서는 중앙아메리카주통합체제와 운영문제, 중앙아메리카주사법재판소창설문제, 농목축업의 발전과 현대화추진문제, 중앙아메리카주안전리사회창설문제 등 지역통합과 관련한 방도와 대책적문제, 1993년 5월까지 매개 나라들이 결정하게 될 중앙아메리카주경제통합기초를 토의하고 합의를 보았다.

1993년에 들어와 엘 살바도르, 코스타 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의 나라들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중앙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를 강화해나갔다.

1993년 2월 파나마를 제외한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성원국 수뇌자들은 3월 1일부터 통일적인 관세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5개 나라의 수입세가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중앙아메리카지역에서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되었다.

1993년 4월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 살바도르의 수뇌자들은 지역의 경제통합과정을 추진할 목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매개 나라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통일시키고 사증제도를 없애며 자유래왕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리고 무역에서 니카라과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코스타 리카와 파나마가 지역통합을 위한 4개국의 이러한 조치와 노력에 합세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중앙아메리카대륙 면적의 3/4을 차지하고 이 지역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4개 나라가 취한 이 조치는 중앙아메리카지역의 일체화과정에 대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었다.

1993년 10월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의 6개 나라 대통령들은 과테말라에서 중앙아메리카경제일체화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이 지대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정서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점차 없애고 중앙아메리카주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며 화폐의 자유유통을 실시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며 지역안에서의 노동력과 상품 및 자본의 유통을 실시하는것 등 성원국들의 경제를 호상 접근시키고 무역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의 기본내용이 밝혀져있었다.

그밖에도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성원국들은 1994년에 수뇌자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발전연합》이라는 공동계획을 작성하고 1996년부터는 제2단계목표를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성원국들은 에네르기부족이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심히 제약하고있는 상황에 대처하여 많은 자금을 들여 1997년부터 과테말라에서 파나마에 이르는 고압송전선을 가설하여 성원국들에는 통일적인 전기공급을 진행하는것과 동시에 기타 여러 부문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수백종에 달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통일시킬데 대하여 합의하고 완제품관세는 당시의 20%로부터 15%로 떨어지며 원자재관세는 5%로부터 0%로 떨어질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해 5월 성원국수뇌자들은 니카라과의 몬테리마르에 모여 《지역관광발전행동강령》에 서명하고 관광기초시설개선, 관광정책과 립법의 통일, 전문일군양성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관광업을 성원국들의 경제발전의 돌파구로 삼을것을 결정하였다.

랭전종식후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뿐만아니라 까리브공동체를 통한 지역경제통합도 힘있게 추진되었다.

랭전종식후 까리브공동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억속화책동에 대처하여 지역경제통합을 강화해나갔다.

1990년 8월 까리브공동체성원국은 1993년에 까리브공동시장을 창설하고 지역의

일체화를 실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1992년 1월부터 통일적인 대외관세를 실시하고 성원국들사이의 관세장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화폐의 통일을 실현하고 투자기금을 내오며 성원국들사이의 자유래왕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1995년 7월에 가이아나의 수도 조지타운에서 진행된 제16차 카리브공동체수뇌자회의에서는 국제적인 경제블럭화추세에 맞게 카리브공동체를 더욱 확대하며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바로 이 회의에서 네덜란드어를 쓰는 수리남이 카리브공동체의 정성원국으로 선포됨으로써 성원국수는 14개로 늘어났다. 결과 카리브공동체는 언어장벽을 허물고 보다 지역적인 통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아니라 회의에서는 1996년 1월부터 지식인들과 숙련노동력의 자유이동 및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대학졸업생들이 성원국안에서 자유로이 이동취업하는것을 허락하였으며 지역안에서 무역관세를 제거하기 위한 나라별 및 단계별과업을 설정하였다.

지역경제통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카리브공동체는 대륙적인 경제통합기구로 발전하였다.

이미 1992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진행된 카리브공동체수뇌자회의에서는 카리브국가연합창설안이 제의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1993년 저메이커의 수도 킹스톤에서 진행된 카리브공동체수뇌자회의에서는 기구의 창설방안이 구체화되고 그 범위를 카리브섬나라들과 연안대륙국가들을 망라하는 큰 규모의 포괄적인 대륙경제통합기구로 만들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그에 이어 1994년 5월 도미니카의 수도에서 30여개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나라들에서 온 대표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카리브국가연합창설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기구창설에 관한 협정문초안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이해 7월 콜롬비아의 카르파헤나에서는 카리브국가연합창설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나라들의 수뇌자회의가 다시 진행되었다. 이 회의결정에 의하여 카리브국가연합은 450만km²의 면적, 2억의 인구, 5 000억US\$의 국내총생산액, 1 800억US\$의 무역액을 가진 경제기구로 발족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활동하게 되었다.

카리브국가연합이 창설됨으로써 중앙아메리카지역에서의 경제적협조가 보다 강화되게 되었다.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가 혁명승리후 처음으로 지역적인 경제기구에 가입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카리브국가연합의 창설에 대하여 《이것은 처음으로 되는 그러나 아주 중요하고도 옳은 전진이다.》고 하였으며 가이아나대통령도 《카리브국가연합을 창설할데 대한 역사적인 협정에 서명한것은 25개 나라와 2억의 카리브지역 인민들에게 더 밀접한 경제, 사회, 문화적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발기의 실현으로 된다.》고 하였다. 바베이도즈수상은 《카리브국가연합의 창설은 전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의 통합을 위한 우리의 꿈의 실현에 더 가까운 합의조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 카리브공동체를 확대강화해나감으로써 경제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중앙아메리카나라들의 투쟁은 보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랭전종식후 지역의 경제적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남아메리카지역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이 시기 안데스공동체, 남아메리카공동시장 등을 통하여 남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가 강화되었다.

안데스공동체성원국들은 이미 1999년 6월 콜롬비아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체창립후

지난 30년동안 이룩한 성과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토대하여 지역적협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성원국들이 2005년까지 공동시장을 창설할데 대해서와 통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2002년 1월에는 볼리비아의 싘파끄루스에서 지역의 경제발전문제를 주요의제로 하여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공동체성원국 수뇌자들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안데스공동체성원국들의 경제가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아 침체되고있는것을 인정하고 이를 막고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외교, 대외무역, 재정, 경제상들이 공동체의 통일적인 대외관세를 다시금 확정하였다.

그후 안데스공동체성원국들은 특별수뇌자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회의들을 통하여 성원국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성원국들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치적립장을 잘 조정하고 공동의 대외정책을 제정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고 자기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지킬것》을 명백히 하였다.

안데스공동체는 공동시장으로 확대되면서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지역경제통합기구인 남아메리카공동시장과의 경제적연계를 밀접히 해나갔다.

이와 함께 남아메리카공동시장을 통한 경제분야에서의 지역적협조가 강화되었다.

남아메리카공동시장은 경제분야에서의 지역적협조를 목적으로 남아메리카지역에 창설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지역경제통합이다. 남아메리카공동시장의 창설사업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두 나라는 1985년부터 쌍무적교섭들을 진행하였으며 1990년 7월에는 공동시장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적협정을 체결하였다. 그해 9월에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여기에 합세하였다. 이 남아메리카의 4개국 수뇌자들은 1991년 2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씨온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남아메리카공동시장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94년 12월에는 최종의정서를 조인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월 1일 남아메리카공동시장이 정식 발족되었다. 당시 공동시장성원국들의 인구는 2억명에 달하였으며 국내총생산액은 9 900억US\$로서 중남아메리카의 60%를 차지하였다.

남아메리카공동시장이 창설된 후 성원국들사이에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관세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었다. 1992년부터 1997년 6월사이에 공동시장내 수출은 3.9배나 증가되고 전체 수출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로부터 21.5%로 늘어났다. 특히 브라질로부터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은 4.8배로 장성하였으며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무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거래는 약 50%나 되었다. 공동시장내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기업들의 공동시장내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그뿐만아니라 공동시장안에서 1995년 1월부터 단계별로 관세를 없애는 원칙을 건지하여왔으며 결과 2000년에는 공동시장성원국내에서의 관세가 완전철폐되고 무역의 자유화가 실현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남아메리카공동시장성원국들사이의 무역은 한층 더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1년 6월 파라과이의 수도에서 진행된 남아메리카공동시장성원국 수뇌자회의에서는 지역내에 의연 존재하는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데서 힘을 합쳐나갈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지역기구로서의 공동시장의 활동을 적극화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세계 무역기구회의에서 통일적인 입장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에콰도르에서 진행된 제2차 남아메리카수뇌자회의에서는 지역적협조를 다그

치기 위한 협상들이 진지하게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많은 안들이 제기되고 일련의 합의들이 이룩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남아메리카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해나가려는 의지를 재천명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반영한 과야킬최종선언을 채택하였다.

남아메리카공동시장을 확대강화하고 지역의 단합과 협조, 통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적극화되는 가운데 2004년 12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수리남의 12개 남아메리카나라들에 의하여 남아메리카국가공동체가 창설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중순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에네르기에 관한 남아메리카수뇌자회의에서는 남아메리카국가공동체를 남아메리카동맹으로 개편, 확대하기로 하고 그 상설서기국을 정식 내왔으며 에네르기분야에서의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에네르기리사회를 조직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남아메리카나라들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서방금융기관들의 구속을 받지 않고 지역나라들의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자체의 은행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이 나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최근 남은행창설에 관한 문건이 마침내 조인되게 되었다. 결과 남아메리카대륙에서 경제적통합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9월 수리남의 파라마리보에서 진행된 제7차 남아메리카동맹수뇌자회의에서는 지역의 통합을 다그치고 평화와 안전, 하부구조 및 정보통신발전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공동체성원국들이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단결과 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갈데 대해 호소하는 파라마리보선언을 채택하였다.

남아메리카동맹은 여러차례의 국가수반회의와 정부각료회의들에서 참가국들의 호상특혜의 제공을 통하여 무역협조를 강화하며 공업, 농업, 수산업 등 분야에서 통합을 심화시켜나갔다.

또한 랭전종식후 경제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새 세기에 들어와 새로 창설된 지역적경제통합기구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특히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의해 《우리 아메리카인민들을 위한 볼리바르동맹-인민무역협정》(알바)이 창설 및 확대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알바의 창설목적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반대배격하고 단합된 힘으로 반제자주,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해나가려는데 있었다.

2004년 12월에 먼저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알바의 창설을 발기하고 그에 볼리비아가 합세함으로써 라빠스에서는 첫 알바3개국수뇌자회의가 열리었다. 알바의 창설을 선포한 이 회의에서는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고있으며 자본주의를 파멸시키는것은 우리의 전략적과제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의 정책적립장과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정치적흐름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알바는 자기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갔다. 2007년 1월 니카라과가 알바에 가입한데 이어 2008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에서 진행된 알바성원국수뇌자회의에서는 도미니카를 알바성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며

알바은행도 정식 창설하였다. 그리고 이해 10월에는 온두라스, 2009년 6월에는 에파도르, 쟈트 빈젠트 그레너딘즈, 안티구아 바부다가 알바에 가입함으로써 그 성원국수는 9개 나라로 확대되었다.

알바성원국들은 2009년 2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수뇌자회의에서 교육, 보건, 농업, 경제의 하부구조분야에서 이룩된 통합의 성과를 총화하고 앞으로 경제적통합을 일층 심화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기하였으며 가맹국들이 무역, 투자, 교류의 확대,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한 지원, 경제하부구조정비에서의 협조, 에네르기통합, 자체의 금융기관의 창설에 의한 서방세계에 대한 의존의 축소,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공동 규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과 립장의 통일 등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알바성원국들은 경제적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담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들도 취하였다.

이미 2009년 4월에 진행된 알바성원국수뇌자회의에서는 경제적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화폐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화폐 쉘레가 2010년 1월 1일부터 알바성원국들의 무역화폐로 정식 리용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2008년 1월 베네수엘라의 수도에서 진행된 알바성원국수뇌자회의에서는 20억US\$의 기초자금으로 성원국들의 발전계획에 자금을 보장해주는 알바은행이 창설되었다.

이것은 알바의 역할을 높이고 성원국들의 사회경제발전을 이룩하며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고 경제적통합과정을 다그치는데서 새로운 전진으로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은 서로 굳게 단결하여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해나가려는 자기들의 지향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2009년 10월에 진행된 알바성원국수뇌자회의에서는 성원국들이 21세기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다시금 강조되었다. 이 회의에서 연설한 베네수엘라대통령은 알바성원국들의 단결은 21세기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성원국들이 사회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바로 알바성원국들이 사회주의를 적극 지향하며 경제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고 그 성과들을 날로 확대해나가는 사실은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다시한번 확증해주는것으로 된다.

알바외에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새로운 경제통합에서 주목되는것은 2011년 4월에 페루, 칠레, 콜롬비아, 메히코의 태평양연안 4개 나라 대통령들의 합의에 의하여 창설된 태평양협정이다. 페루의 리마에서 창설된 이 4개 나라의 태평양협정은 성원국들사이의 경제적통합을 공고히 하고 전망적으로는 공동시장창설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태평양연안 나라들의 경제적통합은 2010년에 페루대통령의 제안에 의하여 처음 제기되었지만 이 나라들사이의 경제적통합을 실현하는것은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이 나라들의 경제는 국내시장의 한계에 부딪쳤으며 대외시장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더는 발전하기 힘들게 되었다. 바다를 같이 끼고 교류하기도 편리하며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호상 유무상통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있는 태평양연안 나라들은 경제적통합을 강화하는데서 그 출로를 찾았다.

이로부터 경제무역분야에서 주요협조방향을 규정하는 로정도를 확인하고 생산 및 봉사분야에서의 개선을 위한 공동정책의 작성, 자금 및 인적자원의 이동, 아시아지역에서의 새 시장개척 등을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한 통합을 강화해나가고있다.

현시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새로운 경제통합에서 주목되는것은 전지역적범위에서 경제적통합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것이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전지역적범위에서의 경제적통합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왔으며 2008년 12월에 브라질의 쌀바도르코외에서 외부의 개입을 배제한 전지역적범위의 경제통합을 실현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쌀바도르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9년 초에는 통합과 발전에 관한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를 열고 지역통합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면서 한결같이 전지역적인 경제적통합과 협조만이 보다 조화롭고 공정하며 다국적인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기여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지역적범위의 경제적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2011년 12월 라틴아메리카나라 수뇌자들은 메히꼬에서 회의를 열고 호상존중과 평등, 민주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ALC)를 창설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간섭을 막고 전지역의 자주적발전과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하는 22건의 합의문건들을 채택하였다.

이 기구는 창설되자부터 협의, 조정, 협력 및 공동행동 등에 의하여 지역내 통합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늘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경제분야에서의 자립적발전과 지역적협조를 위한 투쟁이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처럼 랭전종식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지역적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경제적일체화를 적극 추진시켜나갔다.

2. 3. 정치, 문화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투쟁

랭전종식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지역의 일체화실현의 일환으로 정치, 문화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려나갔다.

우선 정치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투쟁이 적극화되었다.

랭전종식후 제국주의자들이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불신과 알뜰을 조장, 격화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는 조건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정치적대립과 분쟁을 해소하고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로부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회담들과 협정들을 통하여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분쟁을 끝장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1990년 4월 니까라과의 몬텔리마르에서 진행된 제7차 중앙아메리카주 5개국(니까라과, 파페말라, 온두라스, 코스타 리까, 엘 쌀바도르)수뇌자회의에서는 니까라과반정부무장력인 《콘프라스》해체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였으며 그후에도 이 나라들은 분쟁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투쟁들을 벌려나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2년에 엘 쌀바

도르와 온두라스사이에는 100여년간의 국경분쟁이 종결되었다. 이해 9월 11일 최종결정에 따라 온두라스는 분쟁령토의 290km², 엘 썰바도르는 150km²에 대하여 영유권을 가진다는것이 확인되었으며 9월 28일에는 온두라스대통령이 엘 썰바도르를 방문하고 이것을 정식 확정하였다. 이리하여 중앙아메리카의 가장 오랜 분쟁으로 알려진 이 두 나라사이의 령토분쟁이 종식되게 되었으며 그후 이 나라들은 호상쌍무협조 특히 무역을 비롯한 경제협조에 관심을 돌릴수 있게 되었다.

1996년 3월에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내무상들과 브라질사법상사이에 나라의 국경지역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페루와 에파도르도 국경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98년 6월 브라질에서 브라질대통령의 중재밑에 페루와 에파도르가 두 나라의 국경분쟁을 해결할데 대해 견해일치를 보았으며 많은 회담과정을 거쳐 이해 10월 당시 페루대통령은 브라질리아에서 반세기이상 끌어오던 국경분쟁을 끝장낼데 대한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채택하고 1942년 당시의 국경을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두 나라사이의 국경분쟁이 종식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대통령들도 1998년 12월 카라카스에서 국경분쟁을 평화적으로 중재하며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두 나라사이의 국경문제에 관한 협상과정에 전진이 이룩되었다고 하면서 친선과 단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할것이라고 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국제무대에서도 공통된 입장을 취하였다. 1991~1998년 사이에 유럽동맹외무상과 중앙아메리카나라 외무상들이 공동으로 9차례에 걸치는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1999년 6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구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32개 나라와 유럽동맹 15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첫 유럽동맹-라틴아메리카수뇌자회의가 열렸으며 21세기를 지향하는 유럽-라틴아메리카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한것, 1999년 9월 제1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상설기구가 설립된 사실 등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정치적협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나라들사이의 정치적단합을 강화하며 지역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투쟁들이 적극화되었다. 그것은 남아메리카동맹이 경제적통합에만 그치지 않고 남아메리카방위리사회를 산하에 창설하고 지역의 정치적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한 사실만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2011년 5월 페루에서 진행된 제3차 남아메리카방위리사회에서 집단적안정보장체계를 세울데 대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라울 까스프로는 2014년 6월 77개집단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주권국가들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적대세력의 음모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적대세력들이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하는 나라 정부들을 뒤집어엎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테러와 사이버공격 등 비법적이고 교활한 수법들을 리용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면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련대성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령전종식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교육, 보건, 과학기술 등 문화분야에서의 호상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나갔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등 문화분야에서의 호상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야 하는것은 오랜 기간 외세의 지배와 예속하에서 이 분야의 발전이 매우 뒤떨

여져있었던것으로 하여 이 지역 나라들에서의 교육, 보건, 과학기술 등을 발전시키는것이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조건의 하나로 되기때문이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흐름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그것을 가로막기 위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민족문화말살책동이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는 사실은 교육, 보건, 과학기술 등 문화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호상협조를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과학, 교육, 문화, 보건사업의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나라들사이의 협조를 적극 실현해나갔다.

쿠바의무상은 1993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카리브해 7개 영어사용나라들에 대한 12일간의 실무여행을 진행하였으며 그 기간에 경제문제와 함께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등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교류와 협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보다 앞서 같은해 7월 15일과 16일 브라질에서 제3차 이베로-아메리카수뇌자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쿠바를 비롯한 19개의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에스빠냐, 포르투갈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문화, 교육, 보건, 과학기술문제들과 빈궁청산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그밖에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이후 여러차례의 회의들과 쌍무적 및 다무적협조와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와 교육, 보건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부문만 놓고보아도 효과적인 쿠바의 교육방법이 도입된 베네수엘라에서는 150만 명이 문맹을 퇴치하였고 이런 교육방법이 볼리비아에서도 실행되고있으며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전문가들이 볼리비아의 교육부문에 종사하고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나라 사람들의 눈치료를 위한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이 지역에서 수만명의 사람들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2005~2006년기간에만 하여도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는 26만 1 000여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지난 2006년에 볼리비아에 20개의 병원과 8개의 안과센터를 건설해준 쿠바는 2007년 1월 볼리비아에 또다시 23개의 병원들을 건설해줄 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도 더욱 강화되었다.

2009년 한해사이에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에서 체결된 과학기술협정만 보아도 쿠바와 니까라과, 쿠바와 아이띠, 볼리비아와 브라질, 칠레와 파라과이, 브라질과 에콰도르, 볼리비아와 칠레,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사이에 각각 체결된 협정을 비롯하여 10여건에 달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에서 최근년간 특징적인것은 첫째로, 기계설비와 부분품에 비하여 특허리용권, 기술비결, 공업도안권 등과 같은 형태의 과학기술의 비중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2001~2008년기간에 우루과이가 지역내 나라들에서 도입한 과학기술가운데서 특허와 같은 지적소유권리용에 대한 권리의 양도, 기술설명서와 설계도면과 같은 기술문건의 제공이 차지한 비중이 36%에 달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에서 최근년간 특징적인것은 둘째로, 과학자, 기술자들의 교류이다. 2009년에 에콰도르에 들어와있는 외국의 기술자, 전문가들가운데서 지역내 기술자, 전문가들이 차지한 비중이 42.5%에 달함으로써 1995년의 15%에 비하여 2.8배이상 높아진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우루과이에서 생산된 자동차만 보아도 거기에는 아르헨티나의 기술자, 전문가들의 방조가 큰것이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에서 최근년간 특징적인것은 셋째로, 과학기술후비양성에서의 교류와 협조에 큰 힘을 넣고있는것이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류학생, 연구생, 실습생들을 서로 교류하기 위한 사업들을 날이 갈수록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결과 지난 세기 주로 미국, 유럽동맹나라들에만 치중되던 라틴아메리카나라의 류학생, 연구생, 실습생들이 지금에는 지역내 나라들에 집중되고있다. 메히꼬종합대학에 류학하는 지역내 학생수가 1999년부터 2008년사이에 2.7배 늘어난것만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류학생, 연구생, 실습생들을 서로 널리 교류할뿐아니라 공동으로 대학, 양성기관들을 세우고 과학기술후비들을 키우고있다.

2010년 베네수엘라에 창설된 라틴아메리카종합대학에서는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모집된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같은해 꾸바의 아바나에 현대적인 실험실을 갖춘 과학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주변나라들에서 실습생, 연구생들을 받아들여 기술전습도 진행하고있다.

문화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적극적인 협조는 자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고 지역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된다.

3. 결 론

랭전종식후 제국주의자들이 제창하는 아메리카《일체화》를 반대배격하고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 지역 나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역의 경제적일체화가 적극 추진되고 정치,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단결과 협조가 강화되어 라틴아메리카지역 일체화실현의 근본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의 지역의 일체화,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려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적극적인 지향의 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대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반제자주력량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보다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불신과 알뜰을 조장, 격화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며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오늘의 정세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침해행위를 짓부시고 자주권을 수호하며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 사회주의의 불변침로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것이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실마리어 일체화, 안데스공동체, 알바